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1.17(금) ~ 2023.11.23(목)

제공일시 2023 12 0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1.17(금) ~ 2023.11.23(목)

제공일시 2023 12 0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 SEC,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규칙 다시 손본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건을 완화할 방침임. 새로 도입할 규칙에 따라 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까다롭기 때문임. 공시로 인한 효익보다 비용만 증가한다는 비판도 거센 상황임
-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기업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양을 공시하는 요건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라고 20일(현지시각) 보도함
- 특히 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스코프3(Scope 3)' 배출 공시 규제를 축소할 계획임. SEC 내부에서도 스코프3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음.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기업 내 비용 부담이 커지고, 투자자들에게 불확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스코프3에 대한 최종 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제정에 앞서 여론은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음

(한국경제 2023.11.21) 오현우 기자

2. EU “CBAM, 석유화학·원유정제로 확대”… 韓,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시장 선점해야/ EU 탄소국경세, 중국·인도와 무역 분쟁 우려

-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품목에 석유화학 업종을 추가할 것임을 시사함
- 최근 한국을 방문한 EU 집행위원회는 CBAM 적용 품목에 기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종과 함께 석유화학·원유정제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됨
- 2026년 6개 품목과 동시 적용은 어려워 보이지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기 등을 고려하면 시행 시기는 2028년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 화학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 한편, EU CBAM 도입으로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과 무역 분쟁이 우려되고 있음. 중국과 인도가 CBAM이 무역 장벽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전자신문 2023.11.19) 이준희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3.11.20) 김진영 기자

3. 미, 기후 회복력 강화에 거액 투자… 탄소저장 프로젝트 16개 지원

-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4년마다 발간하는 '제5차 국가기후평가(The Fif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5)'를 공개함
- 보고서 형태로 발표한 제5차 국가기후평가(NCA5)는 미국이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인은 기후로 인해 더욱 광범위하고 악화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 연방정부는 제5차 국가기후평가의 발표와 함께 전력망 인프라, 홍수 위험 감소, 가뭄 저항력 향상 등을 포함해서 미국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60억달러(약 7조8078억원) 이상 투자한다고 발표함
- 기후 회복력에 새로이 투자하는 60억달러 중에서 미국 전력망에 40억달러(약 5조2052억원), 환경과 기후 정의 지역사회 변화 보조금 프로그램에 20억달러(약 2조6026억원)가 투입됨
- 한편, 같은 날 카본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4억4400만달러(약 5777억원)를 지출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3.11.17) 홍명표 기자

1. 정부, 이달 '국가 REC' 매도 시행... RPS위원회 의결

-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번주부터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도를 시행함. 현물시장 REC 가격 상승에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임
-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지난 17일 RPS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국가 REC 매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함
- 에너지공단은 이번주 안에 25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매도를 시작함. 이에 따라 이달부터 당장 적지 않은 국가 REC 물량이 현물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이달 현물시장 REC 평균가격 또한 발동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에도 RPS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RPS 공급의무자에게 매도할 계획임
- 이번 달에는 지난 16일 증가 기준 7만8500원에 거래됨. 현 현물시장 REC 가격을 고려하면 당분간 국가 REC 물량은 현물시장에 지속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전자신문 2023.11.21) 변상근 기자

2. 환경부·중기부, 종이빨대 등 친환경업계 지원 맞손

- 환경부가 친환경 재활용 사용 우수 매장을 지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지원 방안이 추진됨
- 정부가 이달 초 카페와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서 친환경 제품 제조 기업과 사용 상점이 피해를 입자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임
-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힘
- 중기부는 이외에도 종이 빨대 제조업체 등 매출이 줄어든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에 내년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환경부는 종이 빨대 수요 유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소상공인 단체들도 지원에 나섬.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빨대를 공동구매하고, 다음 달 구축될 조합 쇼핑몰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다회용품 생산 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임
- 소상공인연합회도 다회용품 공동구매를 유도하기로 함

(서울경제 2023.11.20) 노현섭 기자

3. '과대포장 기준법' 내년 4월 시행... 정부, 쇼핑물 등 갈등 해결책 찾는다

- 환경부는 내년 4월 28일부터 택배 등의 포장공간 비율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품 포장 규제를 시행함
- 지난 2022년 과대포장이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을 받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제정함
- 규칙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 비율을 15%,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규정함. 음료·주류·건강기능식품 등은 포장공간 비율을 25% 이하로 제한하고, 제과류는 20% 이하, 케이크는 35% 이하, 전자제품류는 35% 이하로 규정함
- 물건 대비 너무 큰 박스를 사용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커머스 업계도 고심하고 있음
- 환경부는 취지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운영할 계획임

(전자신문 2023.11.19) 최다현, 민경하 기자

1. GM, 테슬라 '기가 캐스팅' 개발사 인수... 현대차는 2026년부터

-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차 테슬라(TESLA)의 혁신적 차체 제작기술 가운데 하나인 '기가 캐스팅(Giga Casting)' 개발업체를 인수함
-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GM이 테슬라 금형 기술 협력사로서 기가 캐스팅 개발에 참여했던 TEI를 최근 인수했다"고 보도함
- GM은 이번 M&A를 통해 테슬라와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됨
- GM은 "혁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고유한 주조 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TEI를 인수했다"고 밝힘
- GM이 본격적으로 차체 기술 개발 혁신에 도전하는 만큼, 경쟁사인 독일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는 물론 한국 현대차까지 속속 관련 기술 도입을 추진 중임. 현대차는 '하이퍼 캐스팅'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설비를 준비 중임

(이투데이 2023.11.16) 김준형 기자

(이데일리 2023.11.16) 김겨레 기자

2. AI로 발전량 예측한다... GE버노바, 재생에너지 최적화 솔루션 출시

- 14일(현지시각) 미국 GE버노바(GE Vernova)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오케스트레이션(Flet Orchestration)을 출시했다고 밝힘
- GE버노바는 제너럴 일렉트릭(GE) 에너지 부문으로, 모회사 GE의 경영 효율화 전략에 따라 2024년 초 개별 상장사로 분사할 예정임
- GE버노바는 재생에너지의 가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와 머신 러닝 기술을 도입함
- GE버노바의 플랫폼 오케스트레이션은 재생에너지 전원의 들쭉날쭉한 발전량 데이터를 분석, 기존 전력망과의 원활한 통합 운영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으면서도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극대화해주는 프로그램임
- 발전량 예측 주기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15분에서 일주일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 총 발전비용을 최소화해주는 기능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가장 적절한 수준의 예비 전력 확보도 가능함

(인팩트온 2023.11.21) 이재영 기자

3. 파나소닉, 11조 자회사 매각... 배터리에 다 걸었다

- 일본 배터리업계의 자존심 파나소닉이 배터리사업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사업 정리에 이어 매출액이 11조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자동차부품 자회사마저 매각함
- 파나소닉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굴지의 자회사 '파나소닉오토모티브 시스템즈'를 전격 매각함
- 파나소닉의 자동차부품 자회사 매각은 전기차용 배터리사업에 그룹의 미래를 걸고 대대적인 캐파(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자체 자본 확보 전략으로 풀이됨
- 니혼게이지아이는 "수익률이 낮은 사업을 잘라내고 핵심 사업에 보다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함

(투요경제2023.11.20) 김태관 기자

4. 글렌코어, 녹색전환 위해 코크스 석탄에 90억달러 투자

- 글렌코어가 캐나다 광산업체 텍 리소스(Teck Resources)를 89억달러(약 11조5477억원)에 인수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함
- 글렌코어는 캐나다 서부에 있는 텍 리소스의 점결탄(coking coal) 광산을 확보했으며, 이 계약의 일환으로 석탄 자산 지분의 77%에 대해 69억3000만달러(약 8조9916억원)를 지불함. 나머지 지분은 일본 니폰스틸(20%)과 한국 포스코홀딩스(3%)가 각각 인수하기로 함
- 글렌코어는 텍 리소스의 제철 석탄 사업과 자체 석탄 자산을 통합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인팩트온 2023.11.17) 김환이 기자

1. 현대글로비스, 美 신규 거점 마련… 현대차 조지아 EV공장 옆자리

- 현대글로비스가 원활한 현대자동차 전기차(EV) 운송 서비스를 위해 조지아 EV공장 인근에 새 거점을 마련함
-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내년 2분기에 미국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근처 메트로 애틀랜타로 사무소를 이전함
-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의 HMGMA 완공으로 전기차 생산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사무소를 이전해 물류서비스를 지원함
-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자동차 선사 중 최초로 전기차 맞춤형 해상운송 솔루션을 마련함. 화주사에 사전 정보도 공유함. 안전한 운송을 위해 차량의 간략한 정보를 포함해 배터리 충전율과 화주의 요구 사항 등을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함

(더구루 2023.11.22) 김소연 기자

2. 에코프로, 헝가리서 SK에코플랜트와 폐배터리 공장 건립

- 에코프로와 SK에코플랜트, 테스는 16일 '헝가리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힘
- 3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협력 지역으로 헝가리를 확정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임
- 헝가리는 2022년 기준 중국, 폴란드,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국임. 국내외 배터리 관련 기업과 전기차 업체의 투자가 이어지며 유럽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
- 3사는 헝가리에서 폐배터리 및 스크랩(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등 재활용을 위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임
- 에코프로의 폐배터리 재활용 소재 기술력과 SK에코플랜트, 테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헝가리 등 유럽 지역에 거점을 둔 국내외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물량 확보에 나섬

(뉴시스 2023.11.19) 이다솜 기자

3. 삼성물산, 호주 노던 테리토리서 그린에너지 생산·수출 허브 조성

- 삼성물산이 호주 노던 테리토리 주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저장과 수소 생산을 위한 그린허브 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15일(현지시간) 체결함
-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를 이용해 대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파크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녹색 수소 생산 시스템, 그리고 관련된 송전 인프라를 포함함
- 삼성물산은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제조 허브를 구축할 계획임
-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의 생산량은 삼성 계열사를 포함해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제조 부문 내 회사에 전달될 예정임
- 양해각서 기간은 2년이며,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노던 테리토리 주정부 관계자들은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적합한 입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할 예정임
- 이번 노던 테리토리 그린허브 프로젝트는 삼성물산의 호주 친환경 에너지 시장 공략의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됨

(글로벌이코노믹 2023.11.16) 홍정화 기자

4. OCI홀딩스, 폴리실리콘 투자 늘린다… '非중국산' 반사 수혜 기대

- OCI홀딩스가 주력 제품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의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제재로 비(非)중국산 폴리실리콘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데 따른 전략임
- OCI홀딩스는 한국보다 전기료가 저렴한 말레이시아 공장을 중심으로 폴리실리콘 설비투자를 확대함
- OCI홀딩스의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 생산 규모는 현재 연 3만5000톤 수준으로, 오는 2027년 6만5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임

(이코노믹 리뷰 2023.11.22) 관예지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1.17(금) ~ 2023.11.23(목)

제공일시 2023.12.0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미 SEC, 기후공시에서 스코프3 제외할 듯

- 기후 공시에서 기업들이 가장 난감해했던 스코프3의 배출량 보고가 기업공시 의무보고 사항에서 면제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짐
- 스코프3 배출량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모든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측정과 계산이 까다로움
- 로이터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최근 로비스트와 기업 임원들에게 SEC가 기후 공시에서 고려해왔던 가장 까다로운 온실가스 배출 공개 요건 중 일부가 축소될 수 있다고 귀뜸함. 특히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공시하는, 스코프3 항목 규제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짐
- SEC가 최종안 발표를 계속 늦춰가면서 고심을 해온 것은 스코프3 배출량 공개 의무화 때문임
- 스코프3 배출량은 총 15개 카테고리별로 모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과 운송, 직원의 출퇴근 통근량, 소비자의 제품사용, 폐기물까지 한 마디로 기업의 모든 밸류체인의 온실가스를 모두 측정하거나, 측정치가 없으면 추정을 통해 계산해야 함
- 스코프3 배출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급망의 협력업체 데이터부터 사용자 혹은 소비자들의 정보까지 확인해야 하며, 이중 계산(double counting)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도 매우 복잡함. 아직 스코프3 배출량 계산에 대한 합의된 방법론이 없음
- 로이터에 의하면, 미 SEC가 스코프3 공시 의무화를 철회하기로 논의의 방향을 튼 이유는 바로 법적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 일부 SEC 관계자는 로이터에 "기업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스코프3 공시를 의무화하면 법적 문제에 더 취약해질 수 있으며, SEC가 스코프3와 연관된 세부규칙을 세울 때마다 소송에 휘말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SEC의 기후공시 관련 규칙을 추적하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SEC는 이미 스코프3 배출량을 보고한 회사에만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사가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등 타협을 할 수도 있다고 함
- 다만, SEC 관계자는 스코프3 배출과 기후 공시 규칙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는 밝히지 않음
- SEC가 기후 공시에서 스코프3 배출량 보고 의무를 제외할 경우 연방기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함
- 한편,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2027년부터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함
- 미국의 향방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국제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 등에서는 스코프3 공시 의무화가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ISSB는 지난해 10월 지속가능성 및 기후 공시 표준안에서 스코프3 공시를 포함했고, 유럽연합(EU) 또한 스코프3 공시 의무화가 예정돼 있음

(임팩트는 2023.11.22) 홍명표 기자